

‘제54회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 성료

전국 시·도 대표 연사 열변, 대통령상에 서울 일반 전주연 씨



◇김경재 총재를 비롯해 웅변대회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맹(총재 김경재)은 10월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대강당에서 ‘제54회 전국 자유수호웅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6~10월의 전국 시·도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대표 15명(일반 5명, 학생 10명)과 육군·해군·공군 군장병 대표 3명 등 총 18명의 연사들이 ‘평화통일과 국민의 역할’, ‘21세기 국민운동의 방향과 과

제’ 등을 주제로 열변 웅변을 펼친 끝에 전주연(서울, 일반) 씨가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 전주연(서울, 일반) ▲국무총리상 장남길(경기, 통진교 2년) ▲통일부장관상 김도훈(육군, 상병) ▲국방부장관상 나경훈(공군, 중사) ▲행정안전부장관상 최은진(경남, 제석초6) ▲국가보훈처장상 유다은

(경북, 남산초 6년) ▲한국자유총연맹총재상 서은(서울, 서교초 5년).

이날 김경재 총재는 대회를 통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여러분의 외침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히 자리매김하는 커다란 힘이자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네행복지킴이 워크숍’ 개최

전문 강사 특강·우수지역 수범사례 발표 등

연맹은 10월 17~18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2017동네행복지킴이 시·도 및 시·군·구 봉사단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여성회장과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은 행정안전부 국고지원 사업인 ‘동네행복지킴이’ 활동 현황 점검 및 수범사례 교환, 우

수 봉사단원 표창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지도자의 역할(권원희 여천미래개발원 원장), 통일선봉대 여성지도자 역할(노희상 자유통일연구원 원장), 우리의 삶과 행복(유현주 연맹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미(美) 대통령 방한 환영



연맹(총재 김경재)은 11월 1~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정문과 주한 미국대사관, 국회, 주한 미군기지를 비롯한 연맹 시·도 지부 및 시·군·구 지회 등 총 248개 지역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성명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북핵 수세국면 뒤엎을 ‘신의 한 수’”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2017년 11월 7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방한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창설 당시부터 자유우방국과의 우호를 사활적 안보이익으로 삼았던 바, 이번 도널드 J.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적극 환영하며 특히 이번 방한은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로 수세국면에 놓인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일거에 역전할 ‘신의 한 수’임을 천명한다.
-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 6·25 동란의 포성속에서도 DMZ 초소를 시찰한 것은 물론 1983년 로널드 레이건, 1993년 빌 클린턴,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의전과 경호문제로도 불구하고 DMZ 초소를 시찰했던 결기를

한 번 더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 우리는 미 대통령이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과 경호를 이유로 최전선을 시찰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자국의 도발로 양국 대통령과 한미 동맹군의 사기가 위축됐다는 오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 우리는 이번 미 대통령 방한을 기회 삼아 한-미 갈등과 동맹 와해를 기도하는 일각의 반미-친중 세력에게 강력 경고한다. 그들은 이미 소련 패망으로 ‘유동 기한’이 끝난 이념적 망령

에 사로잡혀 국가안보의 초석을 흔들고 있다. 우방과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비백산하다 국권을 수탈당한 경술년 차욕을 되풀이 할 것인가?

- 우리는 한미 정상이 그간 사드 배치와 대북 경제원조 등의 사안에서 일부 견해차를 보였던 것과 관련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정상이 소소한 섭섭함은 뒤로 하고 북핵 해결, 한반도 자유 통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라는 ‘큰 그림(Big Picture)’을 함께 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미 대통령 방한 중 최고의 의전과 환대를 당부한다.

2017년 11월 7일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350만 회원 일동